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남 가 회

하동초등학교

홍 상 황†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57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포함시킨 4가지 변인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 경우 아동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수 있고,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괴롭힘 피해는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564(직접효과 .250, 간접효과 .314)이었고, 부정적 양육태도,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및 거부민감성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5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단순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동 우울에 영향을 주는 부모요인, 또래요인, 개인 내적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순차적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아동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괴롭힘 피해와 같은 가정환경과 또래 요인과 더불어 거부민감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양육태도, 또래괴롭힘, 거부민감성, 우울

* 본 연구는 남가회(2015년)의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고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상황,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

Tel : 055-740-1294, E-mail : shhong@cue.ac.kr

현대인에게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보편적인 정신과적 질환이고 성인 중 약 12%가 우울증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장애 중 하나이다(원호택, 1997). 우울은 학자들마다 그 정의가 다양하지만 주로 불행한 기분이 만연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경험, 주관적인 슬픔 또는 불행감 등으로 정의한다(Wicks-Nelson & Israel, 2000). 우울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비관적이고 무력감을 느끼며 피로감, 성욕감퇴,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며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자살하는 등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최정훈, 이훈구, 한종철, 윤진, 정찬섭, 오경자, 1993). 또한 대인관계에서 회피와 거부, 위축된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Krantz, 1985), 대인관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도 빈번히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신현숙, 박유미, 김선미, 2012; Youngren & Lewinsohn, 1980).

아동우울은 성인의 우울과 핵심적 증상은 유사하지만 신체증상, 짜증, 무단결석, 등교거부, 학습부진, 공격적 행동 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Glaser, 1967; Malmquist, 1977; Toolan, 1962). 특히 우울수준이 높은 아동은 평소에 의기소침하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할 뿐만 아니라 불행감, 슬픈 감정, 무기력감 등의 정서적인 증상과 두통, 복통 등의 신체적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며 사랑 받지 못하고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업성적이 부진한 경향이 있다(배주미, 2000). 특히 아동우울은 성인기에 시작된 우울증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우울삽화가 사라진 후에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다

(Kovacs, Paulauskas, Gatsonis, & Richards, 1988). 뿐만 아니라 아동우울은 내재화된 장애여서 학교나 가정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ADHD와 같은 외현화장애보다 조기에 발견되거나 전문적인 치료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배주미, 2000). 또한 아동우울은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하고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한다(문경주, 오경자, 2002; 박광배, 1990). 이러한 몇 가지 측면에서 아동우울에 대한 연구와 조기개입 및 치료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우울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부모와의 관계형성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대상관계이론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었다.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아동기 초기의 애착경험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는 양육태도(parenting style)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quality)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를 비롯한 다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Smith & Myron-Wilson, 1998). 특히 양육태도와 우울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낼 경우 아동은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우울하게 되며(Alloy, 2001; Barber, 2005), 애정 없는 통제라고 하는 부모의 과잉보호적 태도는 불안과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Mackinnon, Henderson, & Andrews, 1993). 그리고 입원한 우울증 환자의 부모는 정상인보다 더 학대적, 거부적이고, 과잉보호적인 반면 관대하거나 애정적인 태도는 유의미하게 낮다(김미진, 2009).

우리나라에서 아동우울을 다룬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돌봄 수준이 높고 자율적인 양육을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여러 가지 정신병적 증상의 수준이 의미 있게 낮다(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그 외에도 가정폭력(권정아, 2002; 김동주, 2003), 부부의 부적절한 양육행동(김혜영, 1999), 불안정한 어머니 애착(이정수, 2006), 부모폭력(박기원, 2009),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황은수, 성영혜, 2006)도 아동의 우울을 유발시키는 선행변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가정 내의 부모와 자녀 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우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직접적이면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요인이다(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1997). 학령기 이전의 아동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만 학령기 이후에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나 학원 등의 또래집단이 있는 장소로 확장된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에서 맺는 또래와의 관계경험과 상호작용은 아동기 우울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종미, 박영태, 박호철, 정여혜, 문승환, 2010). 부모요인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또래관계망, 또래괴롭힘 등으로 대별되는 또래관계 변인들은 아동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학령기의 부정적 또래관계 경험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과 사회적 고립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다(심희옥, 2000; 양원경, 1999; 임현숙, 2003).

아동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또래경험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또래괴롭힘(peer bullying)을 들 수 있다. 또래괴롭힘(peer bullying)이란 개인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 소집단 또는 전체의 공격에 체계적으로 노출되어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격적이거나 의도적인 가해이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힘의 불균형이 특징인 개인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Olweus, 1993a). 또래괴롭힘은 언어적, 신체적 공격과 같은 대면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로 나타나는 직접적 괴롭힘과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등의 관계적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이후 시기에 여러 가지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시킨다. 예컨대,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아동들은 우울과 불안수준이 높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며, 학업성취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우울 및 불안, 낮은 자존감, 외로움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는 괴롭힘은 아동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또래관계 변인으로 알려져 있고(서미정, 김경연, 2004; Olweus, 1984, 1991, 1993b). 아동기의 또래와의 관계경험이 아동기 우울에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이라는 사실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현아, 홍상황, 2013; 임현숙, 2003)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괴롭힘 피해의 인과관계적 측면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 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를 더 가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여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래로부터 인정을 얻기 때문에 또래괴롭힘을 덜 경험하게 된다(Perry et al. 1988).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제재적일수록 아동은 스스로의 사고와 감정을 억제하게 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정적 자기개념을 발달시켜

또래관계에서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Finnegan, Hodges & Perry, 1998).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를 회피하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점차 고립되고 배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이은주, 홍상황, 2014).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로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는 안정적이고 자신을 가치롭게 여겨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래로부터 인정을 얻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덜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Perry & Egan, 1998)와 이와 반대로 부모가 거부적이고 불안정하고, 과잉보호적이거나 방임적일 경우 아동들이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가 있다(Finnegan, Hodges, & Perry, 1996, 1998; Olweus, 1993b; Troy & Sroufe, 1987). 또한 모의 거부적이고 제재적 양육태도와 방임적 양육태도는 또래괴롭힘 피해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김선미, 2005), 아동이 지각한 언어적, 물리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조샘이, 2001)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언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가 우울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수이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언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괴롭힘 피해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가설할 수 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개인내적 변인도 아동의 우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우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개인내적 변인 중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라는 인지취약성을 가정하고자 한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란 의미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부단서에 노출되면 거부에 대해 더 불안해하고 거부를 더 잘 지각하고 과잉반응 하는 성격적, 인지정서적 취약성을 의미한다(Downey & Feldman, 1996). 거부민감성의 핵심은 거부를 예상할 때 느끼는 불안과 분노이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를 지각하게 되면 상처, 분노,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인지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거부에 민감한 사람들은 거부경험 이후에 외로움이나 사회불안, 우울에 영향을 받기 쉽고(Baldwin, 1994; Cooper, Shaver, Collins, 1998; Simpson, Rholes, & Philips, 1996), 거부민감성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랑받고 수용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절망과 우울을 초래한다(Liu, Kraines, Massing-Schaffer, & Alloy, 2014). 또한 거부민감성이 발달된 아동은 적대적 편향이나 내부귀인과 같은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우울을 경험할 수 있으며(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거부민감성이 발달한 우리나라 아동들은 거부를 지각할 때 불안과 분노 뿐 아니라 우울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강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박지윤, 정영숙, 2008)를 미루어 보았을 때 거부민감성을 아동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개인내적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박현아, 홍상황, 2014; 임유경, 2011; Ayduk et al, 1999).

특히 아동기는 부모로부터 수용과 거부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거부민감성의 발달적 측면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가혹한 훈육을 경험하거나 반복된 거절을 경험하면 아동은 이후에도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일종의 거부기대를 형성하게 된다(Downey, Mougious, Ayduk, London, & Shoda, 2004). 부모의 거부적 양육으로 인해 거부기대가 발달한 아동은 타인에게 지지나 수용을 구해야 할 경우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거부를 회피하는 것에 가치를 두거나 타인의 모호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어 실제로 거부를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강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또한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로 인한 생의 초기경험이 거부기대 불안의 범위와 강도 등에서 그 효과가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요인이 아동의 거부민감성 발달에 영향한다는 사실을 가정할 수 있다(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실제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돌봄 수준이 낮고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거부민감성이 높고(유고은, 2011) 부모의 애정결핍적 양육이 아동의 거부민감성을 강화시키며(Erozkan, 2009),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을 발달시켜 아동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강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우람, 홍상황, 2014). 또한 부모가 아동의 욕구에 비수용적일 경우 아동은 타인이 자신을 지지하고 수용해 줄지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내적 작동모델 또는 애착을 발달시키게 되며 그 결과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게 된다(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이복동, 2000; Kennedy, 1999) 이러한 몇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을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 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거부민감성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또래의 신체적, 언어적 괴롭힘, 배척,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무시와 같은 괴롭힘은 거부민감성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고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거부가 거부에 대한 불안과 분노 기대를 증가시킨다(Crick & Grotpeter, 1995; London et al, 2007), 반면 또래관계에서 수용되고 호감을 받게 되면 거부에 대한 불안과 분노 수준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그리고 또래로부터 따돌림 경험이 많은 아동은 아동, 청소년기에 거부를 더욱 쉽게 예상하고 민감하게 지각하게 되고(McLachlan, Zimmer-Gembeck, & McGregor, 2010)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또래괴롭힘 피해를 더 빈번히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박혜정, 홍상황, 2014). 특히, 거부민감성은 부모와 같은 양육자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나 이성관계 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Romero-Canyas,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두 매개변인 중 또래괴롭힘 피해가 거부민감성에 선행하는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또래괴롭힘 피해→거부민감성→우울로 가는 순차적 경로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환경, 또래관계의 질과 같은 부모 및 또래환경요인이나 거부민감성, 자아존중감, 충동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별되는 개인의 특성적 요인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가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단편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관계를 종합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한 아동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빈번히 경험하고 이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강화되어 아동우울이 발달된다는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ed Model)을 가정할 수 있다. 특히, 매개모형의 경우 독립변인보다는 매개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커야 변인간 간접경로의 유의성이 검증(Baron & Kenny, 1986)되는데, 최근의 여러 선행연구(김진아, 2011; 서상원, 2013; 정기성, 2014)에서 대인관계 문제나 또래애착이나 또래괴롭힘으로 대별되는 또래환경적 요인과 거절 및 단절도식,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내적변인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요인보다 우울을 설명하는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고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청소년기의 우울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결과들이 이와 같은 모형 설정의 근거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우울간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괴롭힘 피해, 거부민감성 그리고 우울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이 이를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7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4가지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의 문항수가 많고 제시순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4가지 질문지의 순서를 역순회화시켜 제시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이중으로 응답하거나 한 가지 수준에 고정시켜 반응하는 등의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와 각 검사 별로 누락시킨 문항의 수가 5% 이상인 자료 123부를 제외한 총 57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중 4학년 184명(31.9%), 5학년 192명(33.3%), 6학년 201명(34.8%)이었고 이 중 여학생 261명(45.2%), 남학생 316명(54.8%)이었으며, 전체 아동의 평균연령은 12.03세($SD=.817$)였다.

측정도구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제작한 것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를 위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에 해당되는 과잉간섭, 비밀관성, 방임, 학대에 해당되는 15개 문항을 부모에 대해 한꺼번에 묻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 비밀관성은 훈육기준이 비밀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태도, 방임은 자녀의 신체

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태도, 학대는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인 손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4가지 양육태도를 의미하는 각 문항을 읽고 응답자가 얼마나 자주 그런 경험을 하였는지를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묘연의 연구(2000)에서 내적 합치도는 과잉간섭은 부 .82, 모 .83, 비밀관성은 부 .70, 모 .67, 방임은 부 .69, 모 .67, 학대는 부 .86, 모 .75였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577명의 자료에서는 각각 .69, .50, .72, .76이었다.

또래괴롭힘 척도

대상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rick과 Grotpeter(1995)가 개발한 SEQ(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를 임지영(1997)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상의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및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관계상의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진술된 친사회적 행동 요인의 경우는 역채점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점수를 의미하도록 하여 전체 또래괴롭힘 점수에 포함시켰다.

관계상 괴롭힘은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명백한 괴롭힘은 의도적인 신체적, 언어적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또는 친구를 사귀어야 할 때 또래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임지영(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관계상 괴롭힘 .80, 명백한 괴롭힘 .79,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서는 각각 .81, .87, .91이었다.

아동용 거부민감성 질문지

아동의 거부에 대한 반응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아동용 거부민감성 질문지(Children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를 우리나라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부의 의미와 상황에 맞게 수정한 박지윤과 정영숙(2008)의 한국판 CRSQ를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판 CRSQ는 또래거부와 교사거부와 관련 있는 상황이 각각 6개이지만 한국판 CRSQ는 또래관련 상황 8가지, 교사관련 상황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판 CRSQ는 거부불안과 거부분노 민감성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형은 거부상황에서 나타나는 낙담과 같은 우울반응을 의미하는 거부우울 민감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판 CRSQ는 아동이 각각의 12가지 거부 상황에서 거부가 예상될 때 경험하는 불안, 분노, 우울이라는 3가지 예상정서를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화가 안 난다, 전혀 우울하지 않다)에서 6점(아주 많이 불안하다, 아주 많이 화가 난다, 아주 많이 우울하다), 해당 상황에서 거부가 예상되는 정도(거부예상신념)를 1점(전혀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6점(정말로 정말로 거부당할 것이다) 척도에서 평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거부민감성은 거부상황에서 경험하는 예상정서와 거부예상 정도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즉 거부불안 민감성(거부예상불안×거부예상정도), 거부분노 민감성(거부예상분노×거부예상정도), 거부우울 민감성(거부예상우울×거부예상정도)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3가지 점수를 합하여 12로 나누어 전체 거부민감성을 산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는 원 척도를 다른 척도의 평정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척도로 수정하고 아동이 설문지에 제시된 거부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나'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정하였다.

박지윤(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α 계수는 거부 불안민감성 .88, 거부 분노민감성 .86, 거부 우울민감성 .89, 전체는 .84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거부 불안민감성 .93, 거부 분노민감성 .92, 거부 우울민감성 .93, 전체는 .98로 측정되었다.

아동우울검사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와 Beck(1977)이 제작한 아동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우리나라 아동에게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경우 3요인구조가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 김지혜, 2005)에 따라 부정적 자기상과 비효율성, 대인관계 문제, 부정적 기분과 신체증상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연구에서 CDI의 내적 합치도는 .88, 반분 신뢰도는 .71,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 본 연구에서 수집한 577명의 자료에서 전체 27문항, 부정적 자기상과 비효율성, 대인관계 문제, 부정적 기분과 신체증상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각각 .87, .77, .67, .74이었다.

자료의 처리와 분석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연구 변인간의 관계와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SPSS 19.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내적 합치도 및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비교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잠재변수가 두 개 이상의 측정변수를 포함할 경우 측정오차를 제거한 상태에서 잠재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는데 유용하다.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χ^2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하고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해서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한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타의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해석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

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오류를 측정하는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10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낸다. CFI와 TLI는 값이 클수록 좋은 모형이고 대략 .90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그리고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및 거부민감성의 이중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규성 가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기법에서 매개효과의 추정값이 95%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도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한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연구변인간 상관과 기술통계치

연구에 포함시킨 변인들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계산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일반적으로 왜도가 절대값 3.0보다 크거나 첨도가 절대값 8.0보다 크면 변인의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데(Kline, 1998),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r(577)=.46, p<.01$), 또래괴롭힘 피해경험($r(577)=.43, p<.01$), 거부

민감성($r(577)=.43, p<.01$), 우울은 또래괴롭힘($r(577)=.49, p<.01$), 거부민감성($r(577)=.60,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거부민감성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577)=.52,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나 양육자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아동은 거부민감성이 높으며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울한 아동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거부민감성이 높으며,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은 거부민감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토대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생성기제(the generative mechanism)로 매개변수인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거부민감성을 가정하고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몇 가지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 그리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거부민감성이 완전매개하는 대안모형으로 설정하고(그림 2) 두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경우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의 매개경로와 함께 부정적 양육태도가 우

표 1. 연구변인간 상관 및 기술통계치(N=577)

측정변인	1	1a	1b	1c	1d	2	2a	2b	2c	3	3a	3b	3c	4	4a	4b	4c
1. 부정적양육태도	-																
a. 과잉간섭	.78**	-															
b. 비일관성	.72**	.52**	-														
c. 방임	.61**	.21**	.23**	-													
d. 학대	.75**	.46**	.38**	.30**	-												
2. 우울	.46**	.34**	.30**	.32**	.34**	-											
a. 부적 자기장비효율성	.37**	.27**	.24**	.27**	.27**	.85**	-										
b. 대인관계문제	.40**	.30**	.22**	.33**	.27**	.84**	.68**	-									
c. 부정적 기분/신체증상	.39**	.33**	.28**	.21**	.29**	.86**	.57**	.65**	-								
d. 포래괴롭힘 피해경험	.43**	.31**	.22**	.40**	.31**	.49**	.43**	.49**	.35**	-							
3. 관계상 괴롭힘	.34**	.29**	.18**	.24**	.27**	.46**	.35**	.44**	.41**	.72**	-						
a. 명백한 괴롭힘	.28**	.22**	.17**	.22**	.20**	.28**	.24**	.25**	.24**	.73**	.5**	-					
b.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37**	.23**	.17**	.40**	.26**	.41**	.39**	.44**	.23**	.86**	.38**	.37**	-				
4. 거부민감성	.43**	.33**	.27**	.32**	.31**	.60**	.48**	.55**	.53**	.52**	.55**	.33**	.39**	-			
a. 거부 불안민감성	.42**	.33**	.26**	.31**	.29**	.59**	.48**	.55**	.52**	.52**	.55**	.33**	.39**	.99**	-		
b. 거부 분노민감성	.44**	.33**	.28**	.31**	.32**	.59**	.47**	.54**	.53**	.52**	.55**	.33**	.38**	.99**	.96**	-	
c. 거부 우울민감성	.42**	.32**	.26**	.31**	.31**	.58**	.47**	.54**	.51**	.51**	.54**	.33**	.37**	.99**	.97**	.97**	-
평균(M)	32.21	9.66	7.70	7.80	7.04	35.92	12.05	9.53	12.47	23.91	5.72	6.43	11.76	11.98	4.17	3.94	3.86
표준편차(SD)	8.97	3.55	2.73	3.18	3.05	6.90	2.46	2.34	2.91	7.90	2.48	2.65	4.88	7.37	2.59	2.43	2.44
왜도(skewness)	.36	.39	.30	.65	1.24	.76	.57	.97	.98	.91	1.54	2.27	.57	1.17	1.07	1.16	1.29
첨도(kurtosis)	-.09	-.21	-.34	-.18	1.60	.23	.02	.27	.73	.53	1.94	5.18	-.22	.95	.66	.84	1.46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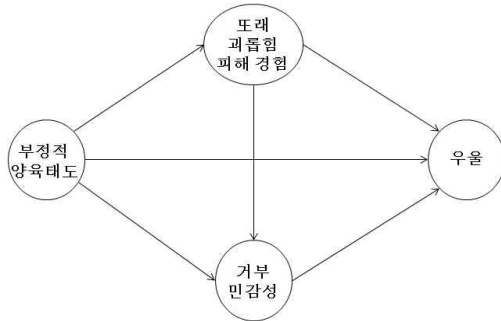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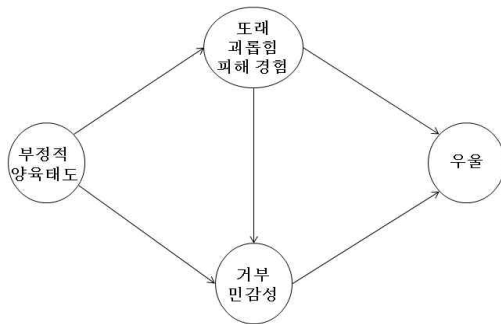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완전매개)

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직접경로의 유의성을 동시에 가정하였고, 대안모형의 경우 아동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환경적 요인에 비해 또래환경적 요인과 개인내적 요인이 매우 크다는 몇몇 선행연구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의 완전매개 가능성을 가정하여 설정하였다.

표 2. 측정변인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5% 신뢰구간)
측정모형	227.437	59	.000	.959	.969	.07(.061~.080)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먼저 분석한 후 측정모형이 포함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2단계 접근법이 타당하다는 기존 연구(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다음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결과는 표 2와 3, 그림 3과 같다.

분석 결과 4가지 변인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959, CFI=.969, RMSEA=.07로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인과 잠재변인간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표 4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41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 양육태도, 또래괴롭힘 피해, 거부민감성, 우울에 대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으며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서 χ^2 값은 표집크기에 매우 민감하고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해서 모형이 기각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t값
부정적 양육태도	비일관성	1.000	.639		
	과잉간섭	1.469	.722	.116	12.669***
	학대	1.113	.638	.102	10.909***
	방임	.750	.412	.098	7.632***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관계적 괴롭힘	1.000	.786		
	명백한 괴롭힘	.823	.604	.065	12.687***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1.393	.556	.134	10.411***
거부민감성	거부 불안 민감성	1.000	.977		
	거부 분노 민감성	.943	.980	.012	79.286***
	거부 우울 민감성	.954	.977	.011	89.133***
우울	부정적 자기상과 비효율성	1.000	.850		
	부정적 기분, 신체증상	.574	.770	.030	19.408***
	대인관계 문제	.539	.718	.031	17.49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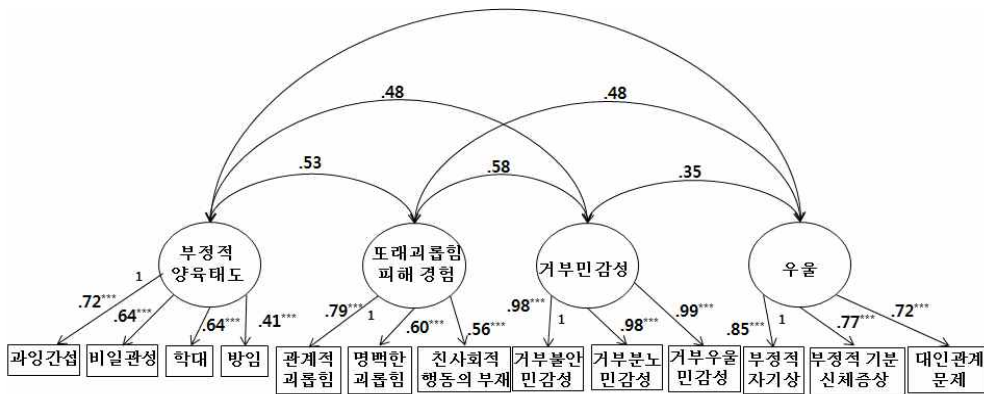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형 (***) $p < .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표 4.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모형	CMIN	CMIN/df	df	p	TLI	CFI	RMSEA (95% 신뢰구간)
연구모형	227.437	3.855	59	.000	.959	.969	.070(.061~.080)
대안모형	247.133	4.119	60	.000	.955	.965	.074(.064~.083)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 오차(SE)	C.R(t)
부정적 양육태도→또래괴롭힘 피해경험	.531	.591	.073	8.062***
부정적 양육태도→거부민감성	.176	.255	.080	3.193***
부정적 양육태도→우울	.250	.437	.101	4.343***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거부민감성	.577	.750	.079	9.455***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우울	.279	.440	.115	3.832***
거부민감성→우울	.345	.417	.068	6.107***

*** $p < .001$

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TLI와 CFI값은 모두 .95이상으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고 모형의 간명도를 평가하는 RMSEA값도 모두 .80이하를 나타내어 두 모형 모두 적합도와 간명도가 모두 우수하였다. 그러나 CMIN/df 값은 4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진다고 하는데 대안모형은 4이상의 값을 가졌고, 연구모형은 4이하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의 자유도의 차이는 1이지만 χ^2 의 차이는 19.696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5에서 임계값인 3.8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 간 적합도 차이는 유의하며 χ^2 값이 더 작은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이 완전매개모형인 대안모형 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LI, CFI, RMSEA 값이 연구모형이 대안모형에 비해 더 우수하였으므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변인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따라서 부정적 양육태도,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거부민

감성, 우울 간의 구조를 검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연구모형의 변인간의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또래괴롭힘 피해경험($B=.59, t=8.06, p<.001$), 거부민감성($B=.26, t=3.13, p<.001$)과 우울($B=.44, t=4.34, p<.001$)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괴롭힘 피해경험도 거부민감성($B=.75, t=9.46, p<.001$), 우울($B=.42, t=6.11,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거부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전체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은 표 6과 같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매개로 하여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306,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199,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거부민감성을 이중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314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이 종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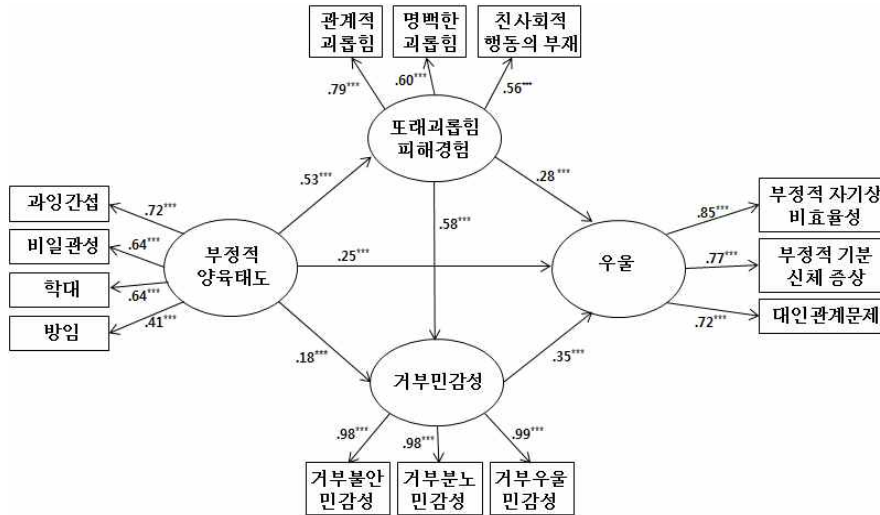


그림 4.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의 관계모형
 (* $p < .05$, *** $p < .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표 6.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SMC
부정적 양육태도 →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531	.531	-	.282
부정적 양육태도 → 거부민감성	.482	.176	.306	.472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 거부민감성	.577	.577	-	
거부민감성 → 우울	.345	.345	-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 우울	.478	.279	.199	.545
부정적 양육태도 → 우울	.564	.250	.314	

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중상관치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값을 살펴보면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28.2%,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거부민감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약 47.2%, 부정적 양육태도, 또래괴롭힘 피해 및 거부민감성이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54.5%였다. SMC 값은 .4 이상의 값을 보이면 잠재변수는 해당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괴롭힘 피해를 설명하는 값을 제외한 SMC 값이 모두 .4 이상이므로 이 변인들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효과 사후검증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각각의 매개경로를

표 7. 매개효과 사후검증

경로	추정값	표준오차	p	95% 신뢰구간
부정적 양육태도 → 또래괴롭힘 피해 → 우울	.107	.052	.002	(.198, .378)
부정적 양육태도 → 거부민감성 → 우울	.057	.025	.001	(.203, .287)
부정적 양육태도 → 또래괴롭힘 피해 → 거부민감성 → 우울	.089	.039	.001	(.265, .398)

p<.01, *p<.001

나타내는 팬텀변수를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각 매개효과 추정값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05 수준에서 모든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의 매개효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단순매개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부민감성의 단순매개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우울간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괴롭힘 피해, 거부민감성과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또래괴

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기술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거부민감성은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동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김은순, 2012), 거부민감성(권정미, 2013) 및 우울(김미진, 2009; 서상원, 2013; 조순애, 2003)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우울 거부민감성과 우울 간에도 정적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은 우울이나 다른 내면적 문제를 경험하고(김진아, 2011; 서은영, 2001) 거부에 민감한 사람들은 거부 경험 이후에 외로움이나 사회불안, 우울에 영향을 받기 쉽다(Baldwin, 1994; Cooper, Shaver, & Collins, 1998; Simpson, Rholes, & Phillips, 1996)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부정적 양육태도(조혜란, 1985; Lamont & Fischhoff, 1976),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조혜진, 2005), 거부민감성(Ayduk, Downey, & Kim, 2001; Brown & Harris, 1978)이 각각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연구 모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분석하

고 비교하였다.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이 완전매개하는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적합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이 대안모형에 비해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모형에서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거부민감성→우울로 가는 이중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보다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의 매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부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하면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거부민감성이 형성 또는 증가되어 우울을 겪을 수 있다는 순차적 관계를 지적인 것이다. 이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위축되고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빈번히 하여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Finnegan, Hodges, & Perry, 1996; Troy & Sroufe, 1987)와 일치하는 것이며, 부정적 양육태도(유고은, 2011;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이복동, 2000; Erozkan, 2009; Kennedy, 1999)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Crick & Grotpeter, 1995; 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McLachlan, Zimmer-Gembeck, & McGregor, 2010)이 거부민감성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매개효과는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아동의 부정적 자기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초래하여 아동 우울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심

희옥, 2000; 양원경, 199; 임현숙, 2003)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많은 개인내적 변인 중 아동의 거부민감성이 아동의 우울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현아, 홍상환, 2014; Baldwin, 1994; Cooper, Shaver, Collins, 1998)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또래관계, 거부민감성과 우울이라는 사회적, 인지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직접적으로 아동기 우울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이라는 매개경로를 거쳐 아동의 우울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된 이중매개경로는 아동이 부모나 중요한 양육자로부터 부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하면 또래관계에서 위축되어 또래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져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우울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김혜영, 1999; 황은수, 성영혜, 2006; Alloy, 2001; Barber, 2005; Krantz, 1985; Lewinsohn, 1974).

지금까지 아동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요인이나 또래관계요인, 그리고 개인내적요인과 같은 단일변인들과 우울간의 단순한 인과관계 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거나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아동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 또래요인, 개인내적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순차적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우울의 발달 예방 및 개입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아동기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괴롭힘 피해와 같은 가정환경요인 및 또래요인과 더불어 거부민감성과 같은 개인내적요인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아동기 우울의 발달기제는 몇몇 단일변인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과 또래관계와 같은 환경적 변인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과 같은 개인의 인지정서적 요인의 발달기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학교장면에서 아동우울을 감소시키고 완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이나 상담적 개입에서 또래괴롭힘을 예방전략과 거부민감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또래괴롭힘 피해를 초래하고 거부민감성을 강화시켜 이로 인해 우울해 진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도 결국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부모상담 및 부모치료가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또래괴롭힘 예방과 거부민감성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울증상을 나타내는 아동에게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익히게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아

동의 인지정서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상담이 제공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정적 양육을 경험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학교와 교사의 노력이 주어진다면 아동우울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박우람, 홍상황, 2014;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고 그에 따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적으로 아동의 자기보고에만 의존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자기보고에 따른 자료는 수검자의 방어,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수검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 부모, 또래 등과 같은 주변 인물들의 정보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기에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횡단적 자료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과 종단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자료의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수집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자료를 수집해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할 때 부와 모를 나누지 않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하나의 변인으로 간주하여 측정하였지만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변인간의 경로 간 유의성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나누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대한 이해력의 문제로 저학년을 제외하였지만 또래괴롭힘 피해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으므로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조기개입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혜영 (2012).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경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님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미 (2013).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아 (2002). 아내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주 (2003). 아내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2009). 부모의 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 김지혜 (2005). 아동 및 청소년에서 소아 우울 척도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693-707.
- 김은순 (2012). 부모양육태도가 또래관계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역할.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9(1), 3-15.
- 김진아 (2011).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관계와 우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미, 박영태, 박호철, 정여혜, 문승한 (2010).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진아 (2011).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환경과 우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1999).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광배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박기원 (200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윤, 정영숙 (2008). 아동의 거절상황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15-37.
- 박우람, 홍상황 (2014).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에와의 중단적 인과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학교심리학회지 11(3), 455-477.
- 박현아, 홍상황 (2014). 아동의 또래거부민감성과 또래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5(1), 55-74.

- 박혜정, 홍상황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또래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억제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5(3), 1-18.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정, 김경연 (2004). 아동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과 또래 괴롭힘. *아동학회지*, 25(2), 93-108.
- 서상원 (2013). 부(父)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감의 관계.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영 (2001). 집단따돌림 하위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학교심리학회*, 9(2), 347-366.
- 심희옥 (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1(1), 19-33.
- 양원경 (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896-903.
- 원호택 (1997). 이상심리학. 서울: 범문사
- 유고은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김현주, 한영근 (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1, 3-10.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 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홍상황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억제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3(1), 49-69.
- 이정수 (2006).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 (1997).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숙 (2003). 중학생의 집단따돌림과 스트레스 수준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기성 (2014).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 간의 관계: Young의 거절 및 단절 도식과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조순애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아동의 귀인양식과 우울과의 관계: 초등학

- 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샘이 (2001).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피해 집단별 관련요인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란 (1985). 우울성향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진 (2005). 청소년의 또래애착,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훈, 이훈구, 한종철, 윤진, 정찬섭, 오경자 (1993). 인간행동의 이해. 서울: 법문사.
- 한지윤 (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2), 73-89.
- Alloy, L. B., Abramson, L. Y., Tashman, N. A., Berrebbi, D. S., Hogan, M. E., Whitehouse, W. G., & Morocco, A. (2001). Developmental origins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arenting, cognitive, and inferential feedback styles of the parents of individuals at high and low cognitive risk f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4), 397-424.
- Anderson, J.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877.
- Baldwin, M. W. (1994). Primed relational schemas as a source of self-evaluative reac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380-403.
- Barber, B. K., Stolt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RCD*, 70(4), Serial No.28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3.
-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 107-157.
- Brown & Harris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a study of psychiatric disorder in women*. New York: Free Press.
- Browne,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Sage, Thousand Oaks, CA.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380-1397.
- Coyne, J. C. (1976). Depression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186-193.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owney, G., & Feldman, S. (1996). The implic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27-1343.
- Downey, G., Lebolt, A., Rinco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Erozkan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ing styles: A study with Turkish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7(1).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6). Preoccupied and avoidant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28.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8). Victimization by peer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076-1086.
- Glaser (1967).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21, 565-574.
- Jacobson, S., Fasman, J., & DiMascio, A. (1975). Deprivation in the childhood of depressed wome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0, 5-14.
- Kennedy, J. H. (1999). Romantic attachment and ego identity, attributional style, and family of origin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3, 171-180.
- Kovacs, M., Beck, A. T. (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In I. G. Shulterand & A. Raskin(Eds).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pp. 1-25). New York: Raven Press.
- Kovacs, M., Paulauskas, S., Gatsonis, C., & Richards, C. (1988).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conduct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 205-217.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rantz, J. (1985). Group Process Under Conditions of organizational Declin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21(1), 1-17.
- Lamont, J., & Fischhoff, S. (1976). Recall of parental behaviors in female neurotic depressiv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4), 762-765.
- Lewinsohn, P. M. (1974). A behavioral approach to depression. In R. J. Friedman, & M. M. Katz (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pp.157-178). New York: John Wiley & Son.
- Liu, R., Kraines, M., Massing-Schaffer, M., & Alloy, L. (2014).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Mediation by Stress Generation. *Psychiatry*, 77(1), 86-97.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L.

-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Malmquist, D. P. (1977). Childhood Depression: A Clinical and Behavioral Perspective: In J. G. Schulerbrants & A. Raskin(Eds.),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 33-59. New York: Raven Press.
- MacKinnon, A., Herderson, A. S., & Andrews, G. (1993). Parental 'affectless control' as a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a risk factor refined. *Psychological Medicine*, 23, 135-141.
- McLachlan, J., Zimmer-Gembeck, M. J., & McGregor, L. (2010). Rejection sensitivity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Peer rejection and protective effects of parents and Friend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9(3), 203-220.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pp.57-76). New York: Wiley.
- Olweus, D. (1991). Bully/ 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411-448.
- Olweus, D. (1993a).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 Olweus, D. (1993b).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ro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315-3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rker, G. (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Perry, D. G., & Egan, S. K.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9-309.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7.
- Romero-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impson, J. A., Rholes, W. S., & Phillips, D.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99-914.
- Smith, P. K., & Myron-Wilson, R. (1998). A matter of degrees: The rising number of 'good' degrees in psychology and at how departments vary. *Psychologist*, 11(11), 535-538.
- Toolan, J. M. (1962).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 32, 404-414.
- Troy, M., & Sroufe, L. A. (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Youngren, M. A., Lewinsohn, P. M. (1980). The functional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problematic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3), 333-341.
- Wicks-Nelson, R. & Israel, A. C. (2000).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4th Ed). NJ: Prentice Hall Inc.
- 원 고 접 수 일 : 2015. 01. 15.
수정원고접수일 : 2015. 06. 14.
최종게재결정일 : 2015. 06. 17.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Depression

Ga-hee, Nam

Hadong Elementary School

Sang-Hwang Hong

Dept.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nd depression. We collected data from 577 students of 4-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at Gyeongsangnam-do. First, all the correlations among the four variables included in this study was proved meaningful. Second, we set a research model supposing that children can experience peer victimization if their parents have negative parenting style, and the negative parenting and the experience of peer victimization can be precedent factor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pplied to the analysis. As the result, the entire effect of negative parenting on depression was .564 (direct effect: .250, indirect effect: .314),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negative parenting, experience of peer victim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depression was 54.5%. Third, it was examined that the experience of peer victimization and the rejection sensitivity mediate in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parenting and depression: simple mediating effect and dual mediating effec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examined the integrated structural relation among parents factor, peer factor, and individual inner factor, which affect children's depression, and proved the sequential relation of these factors. Furthermore, to prevent children's depression, the individual inner factor such as rejection sensitivity should also be considered with home environment and the peer factor such as parenting style and peer victimization. In additio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discussed.

Key words : parenting style, peer victimization, rejection sensitivity, depression